



씨름의 세계화

23일 오후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월드씨름챔피언십 90kg 이하 8강전에서 바우 보카리(베냉, 청)와 코마르 바렐(우크라이나, 홍) 선수가 경기하고 있다. 서울한민족동포씨름대회를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세계 20개국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24) 1992 플레이오프

1992시즌의 '단기전의 명수' 해태 타이거즈는 초단기 전에서는 '머리 잘린 삼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전풍을 이어가며 블랙홀에 빠졌다.
 '밀림의 왕자' 해태가 폭 5m 정도의 해저드에서는 기를 못 펴는 징크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이다. 여기서 밀림은 한국시리즈이고 해저드는 플레이오프전, 5m의 폭은 5차전을 의미한다.
 1990년 플레이오프전서 삼성 라이온즈에게 3전 전패를 당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92년에도 플레이오프전에서 롯데 자이언츠에게 또다시 패하고 말았다. 한국시리즈에 6회 진출해 단 한 차례의 실패도 없이 패권을 차지한 해태였기에 충격도 컸고 그 이유에 대한 해석도 분분했다.
 1차전에서 해태는 원투펀치인 윤학길에 이은 염종석까지 투입한 롯데를 효과적으로 공략했으나 투수들의 4사구 남발과 잇단 실책으로 무너지면서 4-5로 석패했다.

**'단기전의 명수' 해태
 '복병' 염종석에 무릎**

2차전에서는 이강철·문희수의 계투와 박노준의 홈런 2개 포함 3안타4타점과 장재근·이호성의 화려한 홈런포, 박철우·윤재호의 맹타로 9-4로 대승을 거두었다.
 3차전은 '팔색조' 조계현의 1실점 완투속에 이순철·박철우의 각 3안타와 단 한 명도 교체되지 않은 선발타자들이 전원안타 포함 장단 17안타의 맹폭을 퍼붓으며 8-1 압승을 이끌었다.
 한 발짝만 건너면 한국시리즈의 성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목전에 두고 치른 4차전. 활활단신 온몸으로 막아선 '옛날 화랑' 염종석의 사투에 해태가 15명의 타자들을 내보내 돌파구를 찾아보았으나 무위로 돌아가면서 0-4 완봉패를 당했다. 5차전에서는 선발 에이스 윤학길을 무너뜨렸지만 완투승 이후 이를 만에 구원에 나선 부상고출신 투수 염종석의 무실점 마무리 벽을 넘지 못하고 4-10으로 대패하고 말았다.

1992시즌의 해태는 플레이오프라는 해저드에 빠져 가을잔치를 펼쳐보지 못한 채 아쉽게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했다. 선동열은 4월11일 OB전서 9이닝 최다탈삼진(16)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폭격기'로서 고작 11경기에 출장 2승8세이브의 최악의 한 해를 보냈고, 이것을 계기로 '소방 헬기'로 임무를 변경하게 된다.
 마운드에서는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이강철(18)·김정수(14)·신동수(13)·조계현(10)·문희수(10) 등 5명의 10승대 투수를 배출하기도 했다.
 타격에서는 광주상고 트리오인 이순철이 최다안타(152)와 도루(44) 2개 부문에서 1위, 장재근이 뛰어난 투수리드와 함께 23홈런, 홈런우가 타율 0.333, 17홈런, 97타점으로 맹활약한 해이기도 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우즈, 자신이 주최하는 AT&T내셔널 불참

추락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다음주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내셔널 대회에도 출전하지 않는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왼쪽 무릎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즈는 트위터를 통해 주최의가 이 대회에 출전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100%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러니믹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AT&T 내셔널은 우즈가 설립한 재단이 주최하는 대회다. /연합뉴스

돌아온 안치홍 '여름 대반격' 준비

**"타격·수비감 모두 좋다" KIA에 새 활력
 한기주도 2군경기 148km 찍고 '와신상담'**

휴식을 끝낸 안치홍이 여름 반전극을 준비한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안치홍이 23일 잠진 베이스볼파크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넥센과의 경기에서 출전해 13일 만에 타석에 섰다.
 이날 2루수로 선발 출전한 안치홍은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하면서 부상 후 첫 실전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정상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소화한 안치홍은 바로 1군 호출을 받으면서 23일 엔트리에 재등장했다.
 안치홍은 지난 10일 LG와의 군산 홈경기에서 출전한 뒤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2009년 프로 입단이후 첫 엔트리 탈락이었다.
 2009년 개막전 엔트리에 합류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안치홍은 지난 시즌에는 전경기 출장 기록을 세우는 등 데뷔 2년 만에 KIA의 주전 2루수로 자리를 잡았다.
 어깨 수술 여파로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투명했던 올 시즌에도 '독한 재활'로 개막전에 출전하면서 그라운드를 지켰다.
 하지만 허리가 좋지 않았던 안치홍은 허리

통증이 심해져 입단 후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떠났다.
 안치홍은 "경기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급하기도 했지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처음에는 걷는 게 힘들 정도로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휴식과 재활을 통해 몸이 좋아졌다. 타격감도 괜찮고 수비할 때도 불편함이 없다"고 밝혔다.
 올 시즌 20~20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던 안치홍은 계속된 부상에 새로운 목표도 설정했다. 경기 도중 발목을 빼면서 고생했던 안치홍은 지난달 6일 수비도중 손목을 다치면서 연속경기 출장 기록을 마감했다.
 안치홍은 "올 시즌 목표를 조금 수정했다. 부상없이 남은 시즌을 다 소화하는 것이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부상 없이 뛰다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목표를 언급했다.
 한편 이날 2군 경기 선발로 나선 한기주는 6실점으로 부진했지만 2군에서의 3번째 등판을 소화하며 선발 수업을 받았다.
 넥센 타자들을 상대한 한기주는 1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4볼넷 1탈삼진 6실점(6자책)을 기록했다. 63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구속은 148km를 찍었다.
 한기주는 지난 18일 롯데와의 2군 경기에서는 150km의 직구를 뿌리며 4이닝 4피안타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본프로야구 김태균
 허리 통증 치료 귀국**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는 김태균(29)이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은 허리 통증 때문에 최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김태균이 지난 20일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23일 보도했다.
 니시무라 노리후미 지바 롯데 감독은 주치의가 있는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고 김태균의 일시 귀국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IB 스포츠의 한 관계자는 "김태균이 아내 김석류씨와 함께 귀국해 현재 본가가 있는 전원에 머물고 있다. 손목과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안치홍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크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